

# 중(中)에 대하여

‘중(中)’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나 종교가들은  
‘中’을 지나침이 없는 조화로운 중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당한 중간  
등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존의 입장은  
‘中’의 참뜻에 대한 정교하고도  
집요한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  
‘中’은 인간과 만물의 ‘중심(中心)’이며,  
‘중앙(中央)’이며 하나님을 뜻한다.



人居天地之中 心居人之中 人거천지중 심거인지중  
心爲太極 太極爲性 심위태극 태극위성  
日中即盛 月中即盈 일중즉성 월중즉영  
故君子貴中也 故君子귀중야

“천지의 근본은 중심에서 일어나니,  
천지가 변해도 중(中)에서 떨어지지  
않는구나.  
사람은 천지의 중심에 거하며,  
마음은 사람의 중심에 있나니,  
마음이 태극이요 태극은 곧 성(性)이라.  
태양의 중심이 곧 성성함이요,  
달의 중심이 곧 가득 참이라.  
고로 군자는 중(中)을 귀하게 여긴다.”

‘중(中)’의 개념을 빼고는 동양 철학이 성립할 수 없을 정도로 ‘中’의 의미는 중요하다. ‘中’이란 말은 서경(書經)의 「대우모(大禹謨)」 편에서 전설상의 황제인 요(堯)와 순(舜)이 말한 것으로서 처음 등장했고 이후 논어(論語)의 「요왈(堯曰)」 편이나 주희(朱熹)의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 맹자(孟子), 장자(莊子)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경서에서 인용되고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학자나 종교가들은 이 ‘中’을 “지나침이 없는 조화로운 중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당한 중간” 등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中庸)의 개념이 그러하고 주자(朱子), 자사(子思), 정자(程子)를 위시한 정주(程朱)학파의 입장이 그러하다. 순자(荀子) 또한 저울에 비유하여 균형을 강조한 개념으로서의 ‘中’을 설명하였다. 이제 이러한 주장은 거의 상식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입장은 ‘중(中)’의 참뜻에 대한 정교하고도 집요한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 ‘中’은 인간과 만물의 ‘중심(中心)’이며, ‘중앙(中央)’이며 알맹이·알곡·씨앗·말씀·생명 등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뜻한다.

그 근거로 《중용(中庸)》을 보면, 요(堯)임금은 순(舜)에게 명(命)하기를, “允執其中也 允집기중야 (오직 그 中을 잡으라)” 하였고, 순(舜)임금은 다시 우(禹)임금에게 “人心惟危 人心위유 道心惟微 道심유미 惟精惟一 允정유일 允執其中也 允집기중야 (인심인심은 위태롭고 도심도심은 은미隱微 하니 정精하고 한결같이 그 中을 잡으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부연하면 인심(人心)은 나라는 마귀의 마음이니 위험하다 한 것이며, 도심(道心)이 은미(隱微)하다는 말은 내면의 신성(神性), 하나님의 신이 마음 중심에 가두어져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允집기중(允執其中)’ 이 말은 껍데기의 마음, 나라는 주체의식(I-ness, ego)을 버리고, 오로지 내 중심(中心)의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말라는 말이다.

후대의 장자(莊子)는 이를 받아 ‘중(中)’앞에 테두리 환(環) 한 글자를 덧붙여 ‘환중(環中)’이라고 형상화하여 ‘中’이 ‘둥그런 테두리, 즉 껍데기로

둘러싸인 입체적 존재의 중심(中)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 원자핵 속의 중성자(하나님)가 ‘중(中)’이라고 할 수 있고 핵과 중성자를 에워싸고 있는 전자구름(음양의 마귀신)이 ‘환(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좌전(左傳)》의 「成公(성공) 十三年(십삼년) 條(조)」에는 “民受天地之中以生 民수천지중이생 (백성은 천지(天地)의 中을 받아 태어났다)”라고 하였으니, ‘中’이 하나님 내지 하나님의 영의 뜻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中’을 중심 자리의 하나님, 내지 마귀 욕을 뚫고 나온 ‘네 생물의 왕’으로 보고 이해하면 이 구절은 “사람은 천지의 중심 즉, 하나님의 신을 받아 태어났다.”라는 의미의 말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中은 파자(破字)로 풀어보아도 예운담(口)에 뚫을 곧(丿)이 합쳐진 글자로서, 중심의 알맹이가 껍데기를 뚫고 나온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이 비밀은 이기신 하나님, 이간자의 등장과 함께 처음으로 밝혀진 부분이다. 이간자께서는 벌레 충(虫)을 이간자 자신의 상징인 ‘네 생물의 왕(虫)’이라 풀어주셨다.

사각(口)은 네 생물을 상징하며, 뚫을 곧(丿)은 일(1) 즉, 하나님이기도 하고 ‘뚫고 나오다’의 뜻이기도 하니 ‘中’이란 글자 자체가 ‘나라는 의식에 가려있던 알맹이’ 즉, 마귀 욕에 갇혔던 하나님이 그 욕(欲)을 뚫고 나오는 장면을 형상화한 글자인 것이다. 결국 중(中)은 충(虫)과 영적으로 동의어이다. 중(中)은 존재의 중심이자 이간자께서 말씀하신 ‘네 생물의 왕’을 상징한다. 이 네 생물의 왕, 존재의 중심으로서의 중(中)이 여러 경전과 문헌에 어떻게 등장했는지 조금 더 살펴본다.

소용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에는 이렇게 써어 있다.

“天地之本 其起于中乎 천지본본 기기우중호  
乾坤變而 不離乎中 건곤변변이 불리호중

性(성)은 心(심)과 生(생)이 합친 글자요 풀이하면 ‘생명의 마음(=영)이니 곧 하나님을 뜻한다. 그리고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에도 “心(심)은 魔音 心(마귀소리, 마음 심)이요, 性(성)은 聖品 性(성스러운, 성품 성)”이라고 써어 있다.

이상과 같이 황극경세서의 이 구절은 참으로 음미할 만하다. 이는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은 인간이며 나아가 인간의 중심인 바, 인간의 중심은 바로 ‘性(성) 즉 생명의 마음’이요 하나님이니 인간의 내면 그 중심(中心)을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양의 선각들은 인간과 삼라만상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中(중)’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이 ‘中’의 개념이 이제 비로소 ‘마귀욕에 갇힌 하나님’이라는 가려져 왔던 진실을 캐낸 완성자 이간자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청동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오늘날 승리제단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관권을 이기신 승리자 하나님의 빛이 이슬성신으로 내리고 있으니, 매일 예배에 참여하는 이간자의 가지들은 이슬성신에 의해 마귀 욕에 갇힌 하나님이 석방되어 주님의 얼굴과 모습으로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는 빛의 존재로 화하여 날아다니면서 영원무궁토록 진정한 쾌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 水雲 崔濟愚. 海月 崔時亨. - 말씀으로 오신 한울님 -

수운 최제우 선생과 해월 최시형 선생은 사람이 하나님임과 무극대도의 실현을 통한 영생을 외치시다 무지한 세인들의 모함 속에 흑세무민의 죄명으로 핍박받으셨던 불세출의 신인(神人)들이시다. 이분들의 말씀은 말하는 이는 두 분 이지지만 한울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어느 구절하나 버릴 것 없지만 불가불 그 일부만을 살펴본다.

천상에 상제님이 옥경대(玉京臺)에 계시다고 보는 듯이 말을 하니 음양이치고사하고 허무지설(虛無之說) 아닐런가 - 『용담유사(龍潭遺詞)』, 도덕가(道德歌)

註) 하나님이 하늘 위에 있다는 믿음은 허무맹랑한 말이며, 사람의 마음이 곧 한울님이라는 말이다.

天在何方 在於心 (천재하방 재어심)

註) 해월신사는 「天地人·鬼神·陰陽(천지인·귀신·음양)」의 범설에서 “한울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는 나라(天在何方 在於心)”고 하셨다.

한울을 養(양)할 줄 아는 者(자)라야 한울을 모실 줄 아나니라. 한울이 내 마음속에 있음이 마치 種子(종자)의 生命(생명)이 種子(종자) 속에 있음과 같으니, 種子(종자)를 땅에 심어 그 生命(생명)을 養(양)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道(도)에 依(의)하여 한울을 養(양)하게 되는 것이다. - 『해월신사범설』

註) “한울님을 기를 줄 아는 사람만이 한울님을 모실 수 있다. 한울님이 내 마음 속에 있음이 마치 씨앗의 생명이 씨앗 속에 있음과 같다.” 한울님을 기르는 양천주(養天主)와 한울님을 모시는 시천주(侍天主)가 같은 것임을 설하고 있다. 그리고 “씨앗을 심어 그 생명을 기르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도 도(道)에 의하여 한울님을 길러야 한다.” 사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극진히 품고 길러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동학(東學)이 지향하는 것은 신(神)과 인간의 합일을 향한 모든 인류의 동귀일체(同歸一體)이다.

명명기덕(明明其德) 하여내니  
성운성덕(盛運盛德) 분명하다.  
그 모르는 세상사람  
승기자(勝己者) 싫어할 줄.  
무근설화(無根說話) 지어내어  
향인설화(鄉人說話) 분분하고  
슬프다 세상사람....

- 『수운가사(水雲歌辭)』, 교훈가(教訓歌)

사람 속의 밝은 덕을 밝혀내니 성스러운 운이요, 성스러운 덕이 분명하다.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승기자, 승리자, 극기승자)을 싫어하여 근거 없는 말들을 지어내어 모함하니 슬프도다....

註) 명명기덕(明明其德)은 대학(大學)의 첫머리에 나오는 구절이다. 명덕(明德)이란 밝은 덕 즉 사람 속의 밝은 빛, 하나님을 뜻한다. 그런데 왜 ‘명(明) 명덕(明德)’이라 하여 그 명덕(明德)을 왜 또다시 밝혀내야 한다고 한 것일까?

그것은 명덕(明德)이 어둠의 껍데기, 마귀욕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가리우는 껍데기를 거두어야 비로소 명덕(明德)이 본래의 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귀욕에 갇혀 신음하는 미완성의 빛이신 하나님을 해방시켜 완성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재창조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는 인류가 고대하던 성스럽고 성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무지한 세인들은 승기자(勝己者), 즉 이간자가 나와서 이러한 진리를 설하게 되면 그를 싫어하고 근거 없는 말을 지어 모함하게 되니 이것을 한탄하고 있는 글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비와 이슬(雨露)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 『東經大畧(동경대전)』, 布德文(포덕문)

누가 능히 비를 얻어 사람을 살릴 것인가 (何人得雨能人活 하인득우능인활) - 『동경대전』, 佛說(우음)

註) 비와 이슬(雨露)은 격암유록에서 말하는 ‘화우로(火雨露) 삼풍해인(三豊海印)’이며 이는 개벽의 주인공,



▲ “유(備)도 불(佛)도 누천년(累千年)의 운이 역시 다했던가” - 수운가사(水雲歌辭) 교훈가(教訓歌) - 출처: https://blog.naver.com/ksl3699/222023753781

사람을 살리는 한울님의 영(靈)이요 분신(分身)인 것이다. 무지한 자들은 이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나 이슬이아말로 명명기덕(明明其德)하는 무기요, 완성의 하나님이 마귀욕에 갇힌 하나님을 살리는 무기임을 말하고 있다. 완성자 없이는, 이슬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으로 거듭나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슬의 출현을 기다리는 수운 선생과 해월 선생의 간절함이 느껴진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                        |                      |                       |                      |                            |
|------------------------|----------------------|-----------------------|----------------------|----------------------------|
| 역곡제단 : (032)343-9981-2 | 김해제단 : (055)327-2072 | 사천제단 : (055)855-4270  | 충주제단 : 010-9980-5805 | 大阪祭壇 : (06)6451-3914       |
| 수원제단 : (031)236-8465   | 대구제단 : 010-6530-7909 | 순천제단 : (010)3661-9025 | 양평제단 : 010-2945-8254 | Sydney : (006)0415-727-001 |
| 안성제단 : (031) 673-4635  | 마산제단 : (055)241-1161 | 정읍제단 : 010-8628-2758  | 橫濱祭壇 : (045)489-9343 |                            |
| 평택제단 : (010)5695-8971  | 진주제단 : (055)745-9228 | 군산제단 : (063)461-3491  | 神戶祭壇 : (078)862-9522 |                            |
| 부산제단 : (051)863-6307   | 진해제단 : (055)544-7464 | 대전제단 : (042)522-1560  | 下關祭壇 : (0832)32-1988 |                            |
| 영도제단 : 010-6692-7582   | 영천제단 : (054)333-7121 | 청주제단 : 010-5484-0447  |                      |                            |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